

창원 원정 루징시리즈로 마친 LG 염경엽 감독 "잠도 못 잤다"

등록 2026.06.09 17:09:17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, 8회말 1사 1루에서 LG 오지환이 2루타를 날리고 있다. 2026.05.06. 20hwan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문채현 기자 = 고된 원정길에서 1승밖에 챙기지 못하고 돌아온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.

염경엽 감독은 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"오랜만에 루징시리즈를 해서 그런지 엄청 피곤하다"고 고개를 내저었다.

LG는 지난 주말 창원에서 NC 다이노스를 만나 1승 2패를 거두고 서울로 돌아왔다.

첫 경기에선 대체 선발 김윤식이 1회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으나, 8회 1사 만루에 터진 문성주의 결승 적시타로 1점 차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.

하지만 이어진 경기를 5-8로 패하더니, 지난 7일 경기마저도 선발 송승기가 무너지며 패했다.

타선의 힘으로 8회 기어이 6-6 동점을 일궈왔으나 무사 1, 2루에 오지환이 내야 뜬공으로 아웃됐고, 이후 대타 문성주가 병살타를 치며 역전까지 만들진 못했다. 1점 차 아쉬운 패배였다.

염 감독 역시 "8회 (1, 2루에) 오지환에게 치게 할 건지, 번트를 대서 상대가 만루 작전을 펼치면 구본혁, 신민재에게 승부를 보게 할 건지 고민했었다. 저는 전자가 훨씬 확률이 높고, 1점보다는 2~3점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. 그래서 전자를 선택했는데 결국 1점도 못 냈다"고 돌아봤다.

그는 "8회에 (김)진성이가 잘 막았으니까, 1점이라도 났어야 했다. 진성이가 막고 (손)주영이를 썼으면 이겼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.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왔다.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"고 아쉬워했다.

아슬아슬하게 선두를 유지 중인 LG는 이날 SSG를 만나 다시 상승세를 타고자 한다.

이날 LG는 박해민(중견수)~문성주(좌익수)~오스틴 딘(1루수)~문보경(지명타자)~오지환(유격수)~박동원(포수)~송찬의(우익수)~구본혁(3루수)~신민재(2루수)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.

최근 타격감이 좋지 않은 홍창기는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.

염 감독은 "창기는 본인이 느낀 것도 있고,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(송)찬의는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나간다"고 설명했다.

새 외국인 투수 약셀 리오스는 이날 오후 입국, 내일 엔트리에 등록될 예정이다. 예고했던 대로 그는 불펜 투수로 기용될 예정이다.

염 감독은 "내일 면담해 보고, 처음에는 조금 편안한 상황에 올려보고, 그다음부터는 바로 쓸 예정이다. 몸 상태도 체크해 보고 결정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dal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